

< 하나님께 말기는 인생 >

시편 37:4-6 / 새찬송가 384 (통일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인생을 전부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뤄주십니다(시37:5).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아는 것만큼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렘1:4,5).

2.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관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십니다(시37:4). 문제는 내가 형통할 때만 아니라 내가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권세를 쥐는 사람들을 볼 때 혹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볼 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답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기쁨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렘29:11-13). 이 미래와 희망은 축복과 구원, 치료와 건강, 영생과 천국, 성령까지 모든 좋은 것을 합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어도 흘러가면 그 행복은 과거의 그리움과 회한뿐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기뻐도 그 현재는 지금 이뤄짐과 동시에 지나가 사라집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란 '있고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서에서 즐거움은 미래의 소망에 있다고 했습니다(롬12:12). 순교자들은 현실의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가도 미래와 희망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중심이 되어 현재와 과거를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이란 멀리 놓인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마주한 것도 아니며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래의 죽음을 당겨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이데거는 사람이 결단하는 것은 미래를 앞서 잡아끌어 과거와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미래 속에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미래가 중심이 되어 현재와 과거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과거 중심으로 살면 회한만 갖게 되고 현재 중심으로 살면 '있지만 곧 사라지기에' 허무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나 과거 중심으로만 살면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심해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현재나 과거 중심이 아니라 미래 중심으로 살면서 소망이 현재와 과거를 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37편의 진리입니다(시37:8-11).

<적용&실천>

우리는 과거의 삶에 얽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의 삶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은 분명한 것이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